

한림읍 옹포리, 1984.9.5., 김영돈, 윤치부 조사.
장덕기, 남·76.

* 줄거리 : 두모(頭毛) 김씨 집안의 부자가 향교에 볼 일이 있어 함께 가는데 마침 그날이 조상의 제삿날이었다. 향교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수원 논밭 있는 데가지 오니 시장하여 견디질 못하였다. 그런데 동산 위에서 장사지내는 모습이 보여 아들에게 잠시 여기 있으면 조문하고 술 한잔 얻어먹고 오겠다고 하면서 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았다. 궁금한 나머지 아들이 가보니 아까 본 것은 모두 허깨비이었고 아버지는 죽어 있었다. 아들은 대성통곡을 하는데 말은 이 사정을 알고 주인네 집까지 달려가 사람을 데리고 온다. 아버지는 죽었고 아들은 기절해 있었다. 아직 죽지 않았기에 아들을 말에 태우고 집에 온다. 이것은 육지 대지식자가 성산면에 있는 부자집 아들이 단명하여 그날 죽게 되니 재산을 모두 팔아 소못위에 시간 맞추어 갖다 놓으려는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 때문이었다. *

물에 대해서 말인데 두모(頭毛)¹⁾ 짐(金)가의 집의서, 훈 스백년 된 일이다. 시에 향교(鄕校)에 일이 있어서 가 오는데, 그날 저녁 조기 집의 제소(祭祀)랜 말여. 선묘(先墓) 제손디 부주간이 갓 댄 말여.

부주간이 가서 향교일을 다 봐서 오는데 시간이 늦어서 여기서는 못 간다 해도 물이니까 오는데 여기 수원(洙源) 넘어가 못 잇는다. 나룩밧 잇는다 오니 시장해서 견디질 못헌댄 말여. 부조(父子)간이 베가 고파서 아마 요새 7트민 밤의 훈 열시쯤 된 것이죠. 향교에서 일을 불라하니 시간이 늦어서, 아마 향교에 책임자가 뤄난 것이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떡 오니까 그 동산 우이다가 크게 장막 치고 장스지내는 디가 잇댄 말여. 불은 잇날이니까 횃불 켜 놓고 풀 뜯은 놈으로 무꺼서 횃불 켜 낚서 하니 하늘이 흰해서 훈디 배가 고파 견디질 못하니까 아덜보고 하는 말이,

“너 여기 물하고 기다려 잇거라. 이시민 내가 저기 가서 조문(弔門)하고 술 한잔 먹어야 두모 7지 가것다. 베가 고파서 가질 못하니 저기 가서 조문해서 오것다.”

“아버지 이 저녁 제손디 거기 가서도 장스지내니 몸이 비리지²⁾ 안습니까.”

“비림보다도 내가 베 고파서 물 타 갈 수 읍이니 어떨 거냐? 먹어야 갈 거 아니냐?”

“아버지 하는 이야기가 그러믄 당겨오십시오. 여기 물 지키며 기다리겠습니다.”

가니 오나요. 오질 안하거든요. 이젠 물을 잘 메두고 간 보니 상제(喪制)가 서희(셋이) 잇어서 방장대 지프고 전부 이렇게 상복 입고 크게 영장 관을 놓고 아버지는 거꾸러져 죽어 불거든. 죽어 불었어. 아. 보니 상제도 허제비, 다 허제비여. 사름은 하나토 읍고 전부 허제비여. 이제는 아버지를 안아서,

“아버지, 아버지.”

1) 복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2) 忌諱할 송장이나 마소의 죽은 것을 보고 몸이 不淨하여지지.

해서 대성통곡을 하니 누구 사람 하나 잊겠오, 뭇이 잊겠오.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면,

“아바지, 이거 어떤 일입니까?”

하니 이 물이 어떻게 영리했던지 두모³⁾지 뛰어갔어요. 조기 주인네 집의 뛰어가서 먼 올레³⁾서 물 신호로 아항항앙 물 소리를 울리니, 이젠 거기 친족덜이랑 다 잇다가,

“아, 왔다. 제스 때가 됐니 왔다. 물 온 거 보니 왔다.”

고. 나가 보니 안장 지운 물 두필뿐이지 사람은 읊댄 말여.

“아, 이거 큰 곡절 낫다. 어디서 오다가 낙마 돼서 상해노니 물이 와서 신호하레 와서 신호하는 거라. 주인이 떨어졌다. 물 조름에 조끄라(좃으라). 제스고 뭐고 놔두고 물 조름에 쫓까 보자.”

그래 물을 모니 구썩 여기 오는 거라. 여기 오니 앞발을 닥닥 치거든. 여기라고 하는 거지. 앞발을 닥닥치면서 으흥응응. 그렇게 물이 영리헌 거요. 거길 들어가 보니 부즈간이 다 죽어 불었어. 부즈간이,

“아바지, 아바지.”

대성통곡하다가 이젠 조기도 베 곱은 여에 힘에 비쳐노니 아바지 안고 다 죽어 불었어. 그러나 아덜은 아직 안 죽었어. 젊어노니 말여. 숨만 읊어졌지. 하도 울어오니 지쳐서 울도 못하고 기절해서 그냥 했는디, 아덜은 물에 태우고 왔댄 말여. 그것이 제주말로 이젠 돈으로 멧 억대지 방실헌 거여. 방법을 헌 거여. 단명헌 조식을 살릴려고. 게 이걸 몰랐지, 어느 집 안의서 헌 것인지. 게니 내중 헌 십오년만이 들으니 육지 아주 대지식자가 와서 성산면(城山面)의 대부자칩의 아덜이 아주 단명(短命)해서 그날 꼭 죽게 됐니,

“요렇게 해서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지시대로 해서 수원(洙源) 소뭇 우이다가 그 시간에 행나두면은 그 사람이 너 아덜 대리 죽으면 너 아덜은 그 사람 멧을 부터서 산다.”

해서 관도 다 맨들고 유기그릇·양식·돈·장스홀 비용 전부 관속의 담았어요. 상복도 다 허깨비로 맨들아서 입져노니 그 상복 그대로 7져다가 짐 가의 집의선 하나도 돈 훈푼 안 들이고 그 영장을 문혔다 하여. 게니 이것이 누가 헌 거냐. 이것은 대흑자가 헌 것이다. 무식헌 사람은 안 헌 것이다. 말중 앓 앓 헌 것이 성산포에서 육지 사람이 와서 그 지시를 해서 그 시간에 꼬고 두모 사람이 지날 것이다. 그런 설이 잇습니다.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pp.457-459.

3) 거릿길 이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